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 주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①

주제 : 계와 율이 생긴 까닭은? (8월 6일)
법주 : 종진 스님 (해인총림 율주)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은 계와 율을 배우는데서 그치지 않고 율바로 실천할 때 참다운 행복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를 지녀 신구의(身口意)를 깨끗이 하고 / 심심하여 생각을 바로잡으며/ 다문하여 진실지를 나타내나니/ 계율은 이들의 바탕이 되네.
계율은 미묘법을 간직하는 곳/ 그대로가 출세간의 재보(財寶)가 되고/ 계율은 큰배를 타고 갈과 같은 것/ 생사의 저 고해를 건네어 주네.
계율은 청량한 연못이 되어/ 모든중생 열녀(熱惱)를 모두 식혀주고/ 계율은 두려움없는 이슬이 되어/ 중생의 사독해(邪毒害)를 제거해 주네.
(법망경 보살계 '계율찬' 중에서)

사회에서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몇몇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교 계율에도 역시 그런 식의 사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율은 그것을 지키고 공부하는 율사님들만의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만연합니다.
오늘 법회의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부처님의 삶을 배우는 법회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율은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스님들이 지키는 소승계와 재가자들이 지키는 대승보살계가 그것입니다. 스님은 비구·비구니·식차마나

니·사미·사미니계가 있습니다. 또 남자신도는 거사라 하고 여자신도는 보살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지켜야하는 것은 재가율장입니다.
오늘 출가 5부중(비구 비구니 식차마나 사미 사미니)과 재가대중들을 모여 법회를 열고 있는데 법문 중에 혹시 뜻하지 않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계율을 설명할 때는 스님과 신도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구분되어 있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戒)는, 중국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 때 두 손으로 무기를 들고 경계를 선다는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 뜻을 빌리자면 계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한 행동, 좋은 습관, 좋은 성격, 도덕적 행위 등을 잘 익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출·재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지침을 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율(律)은 우리 세속의 법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출가자가 잘못을 저질러 벌을 줄때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제재를 가합니다. 곧 잘못이 있을 때 벌을 받고 그 벌을 받은 다음, 다시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 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율은 부처님 삶으로 나아가는

짓말하지 말라, 다섯째 음주하지 말라, 여섯째 몸을 패물을 달거나 화장하지 말며 노래하고 춤추지 말라, 일곱째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 여덟째 재매가 아니면 먹지 말라를 받고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즘 오대산 절정사의 단기출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것과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 신도가 이러한 계를 어긴다고 무슨 벌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부처님은 지체가 청정한 삶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인과와 법칙을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 설명하십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5계를 지킬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바른 도리입니다. 수계식 때 받은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됩니다. 재가불자는 이것만 지켜도 어김없이 열반이라는 행복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좋은 말만 하라. 둘째, 이치에 맞는 말을 하

부처님의 제자가 된 스님들에게 계율은 목숨처럼 중요합니다. 이생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 부처님을 만나 제자가 된 스님들은 매우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재가자와는 달리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은 가지수도 많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승단을 이끌어 나가실 때는 무엇 이든 좋은 일만 하라, 그리고 나쁜 일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로만 승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다. 율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 한 지 12년이 지나 어떤 제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계기로 처음 제정했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승단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무렵 부처님



계율수행대법회에 참석한 스님과 불자들이 종진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은 인도의 범비사라 왕에게 나라의 중죄인을 다스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평생 부처님을 떠받들었던 범비사라 왕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 할 때, 남의 부인을 낚을 때, 대종이나 국왕을 일부러 망령되게 속이고 거짓말을 할

누구나 지켜야 하고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것
못 지키는것 '자기 허물' 이지
'계율 허물' 아니다

법회 동영상 중계 buddhanews.com

*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기사 관계로 10주동안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과 '스님이야기' 연재를 합니다.

Advertisement for Dalai Lama's Dharma Teaching. Title: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Subtitle: Dalai Lama's Dharma Teaching. Content: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산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복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A팀 기간: 12월 3일~12월 18일 16일간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모드기야-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설법)-찬디가르-델리-인천
B팀 기간: 12월 9일~12월 18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C팀 기간: 12월 10일~12월 19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출발일: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일 정: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리얼핀디-탁살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키슈카르-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8월 20일 - 27일(4박 5일) 749,000원
8월 24일 - 31일(3박 4일) 699,000원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생활의 길잡이

때 사형을 시킨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처님도 승단이 지켜야 할 4가지 계를 제정하십니다. 그 뒤로 승단의 질서와 스님의 위의에 관련된 수많은 계율이 생겨납니다. <사분율>에는 비구 250, 비구니 348가지의 계율이 나옵니다. 계율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씩 추가하다보니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계율을 제정하다보면 어떤 계율은 특수한 상황에서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생겨납니다. 오늘날 날씨가 몹시 덥지요. 원래 부처님은 한달

계를 받는 순간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이 세상을 다할 때 까지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라고 합니다. 계정해(戒定慧)는 부처님의 세계, 열반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배우고 그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부처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목마른 이는 물을 마셔야 갈증을 이길 수 있고, 무더움을 느끼는 이는 부채질을 해야 시원합니다. 결론은 실천이 따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열반이 어떻다 뭐다 백날 떠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와 율을 배워서 실천할 때야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면 '집을 지을 때 터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터를 잘 놓지 못하면 집은 오래 갈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리=조효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일우 율사 계맥 이어

종진스님은 1940년 강원도 강릉 출생. 55년 동화사에서 석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61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63년 해인사 강원 대학교를 졸업하고 70년 지관 강백스님으로부터 강맥(講脈)을, 85년 일우 율사로 부터 계맥(戒脈)을 이었다. 1970년부터 8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인사강원 강주, 1985~98년 해인총림 율원장, 1999~2004년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를 지냈다. 조계종 재심회계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계단위원, 법계위원, 의제실무연구회 위원, 해인총림 율주를 맡고 있다.

말 잘하는 비결

1. 가장 좋은 말을 하라
2. 진리에 맞는 말을 하라
3.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
4. 진실을 말하라

〈숫타니파타〉

에 목욕을 2번만 하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덥이 나는데 그 원칙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나 바람을 맞고, 땀을 많이 흘린 환자들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계율은 전혀 융통성이 없이 제정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구 250, 비구니 348가지 계율은 비구와 비구니가 부처님 삶을 배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스님들에게 계율은 의무이자 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족



동화사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주최한 계율수행대법회의 첫번째 법주로 나선 종진 스님은 8월6일 동화사 통일대법전에서 15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계와 율이 생긴 까닭'을 주제로 법문을 했다.

파계자들이 '개차법' 악용해 변명삼아선 안돼

지현 스님 : 오늘 법주인 종진 스님은 제가 출가 하면서부터 늘 존경하던 스승으로 저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새롭게 하면서 유지시켜준 힘은 삼보님의 힘과 청정계율의 힘이었습니다. 계율의 힘은 육신 많고 여러적은 제 자신의 중심을 잡아주는 방편입니다.

하지만 출 · 재가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비구 · 비구니 수행자들이 법 세우는 힘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계율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부처님이 인도에서 맨 처음 5비구를 제도한 것을 시작으로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후 부처님 열반 500년이 지나 옹수보살 등이 주장한 대승불교운동이 번성합니다. 그러나 불법이 가장 활발하게 꽃피 무렵 인도에서 불교는 사라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대승불교운동이 승가와 재가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인도에서 불교를 사라지게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승보살운동의 핵심은 출 · 재가자를 가리지 않고 보리심의 발하는 정도에 따라 누구나 비구 비구니 보다 높은 지위의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단에서 승속의 구분이 약해지

고, 계율조차 흐려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출가자는 재가자에게 법을 보시하고, 재가자는 승가에 물질적 공양하는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또한 재가자들이 출가자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간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령 참여불교재가연대 같은 경우 절의 수입이 늘면서 생기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재가자들이 종단운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스님의 부정적인 면을 언론이나 인터넷 등으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불성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업성(業性), 수행력, 신분은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 역할도 다릅니다. 출가와 재가가 서로를 도우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계율대법회가 출 · 재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계율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질문 : 계의 조목마다에 지법개차(持犯開遮)에 대한 정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율을

지현 스님
(송광사 율원장)



소홀히 하여 배우지 않은 탓에 계율을 어겨놓고서도 이를 변명의 구실로 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진 스님 : 지(持)는 계율을 지키는 뜻이고, 법(犯)은 못 지킨다는 것인데, 반드시 지킬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이를 허용하는 것을 개(開)라 합니다. 그러다 상황이 개선되면 그것을 다시 막는 것을 차(遮)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 결식하라는 계율이 있었지만 어느 해 극심한 기근이 들어 도저히 결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손수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풍년이 들어 형편이 나아지자 다시 제자들에게 결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유연성을 인정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계를 지키지 못한 이들이 이 개차법을 악용해 변명의 구실로 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제자라면서 계와 율의 근본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율은 시대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不可”

이지랑 : 계와 율은 방지지약(防非止惡), 즉 잘못된 것을 막고 악을 범함으로써 올바른 행을 몸에 익히고 이를 기반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계율이란 자기 자신을 염계(念戒)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심신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잘 지켜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두려움 없는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주는 등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을 단속하며 다른 생물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는 계율이라는 자발적인 힘은 분명 나라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도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1 : 평소 율사스님들에게 계율을 지키는 것이 어떤 점이 좋은 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율을 지키는 것이 어떤 공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진 스님 : 저는 출가한 뒤로 잠잘 때를 빼곤 거의 행(行) · 무로야래 단을 쳐서 묶는 환을 차고 있습니다.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한 모양입니다. 일찍 배워 익히면 나이 들어도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이처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한다면 차차 익히나감으로써 계와 율이 몸에 배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질문2 : 부처님은 잘못이 발생할 때 마다 그것

을 규제하는 수범수제(隨犯隨制)를 원칙으로 율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반직전에 소소계(小小戒) · 중요하지 않은 작은 계율은 버려도 좋다 고 하신데서 보아도 율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종진 스님 : 원칙적으로 수결(隨結) · 계율을 제정해 죄를 막는 것과 수개(隨開) · 계율에 예외를 두어 완화하는 것은 모두 부처님만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여기저기서 율을 고치자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경(經)에 대해서는 고치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부처님 친설(親說)이 아닌 경들이 많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율에 대해서만 유독 시대가 바뀌었으니 고치자는 데는 저는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계를 때문에 수행에 방해가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 저리 고쳐서 근본 가르침을 훼손하다 보면 원형은 사라지고 원칙도 없이 혼란만 가중될 수 있어요. 계율을 만들고 없애는 것은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우리 주변에 결식하는 이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결식하라 했지만 한국에서 결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결식해야 한다는 계와 율이 몸에 배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지랑
(동국대 강사 · 인도철학)



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계율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탓해야지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탓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질문3 : 부처님은 재가불자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때로는 의도들의 비판까지 감인해 계율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승단이 교단 내부는 물론 다른 종교와 일반사회로부터도 존경받는 공동체이기 를 바라셨기 때문일 겁니다. 화합을 위해 승단이 재가신자들의 제언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종진 스님 : 부처님 당시에 비구 비구니에 대해 재가자가 여러 가지 충고를 하거나 조언, 때로는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 외부 사회의 건의에 따라 정해진 계율도 많아요. 그러나 그 당시 재가의 요구는 승단을 보호하고 불교를 지키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재가신도가 요즘처럼 종단의 이러저런 사안까지 간섭을 하겠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스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교도 없습니다. 재가신도들은 스님의 신분의 무엇이고 재가신도의 신분은 무엇인지 공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연 속에 천둥,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 無聲** : 천둥, 번개, 일기변화 등 지구상 정화하는 자연의 원리를 모방하여 100% 자연으로 생산한 공기 정화기
- 無필터** : 신소재 원통형 필터를 이용한 필터가 없는 공기 정화기
- 無소음** :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작동의 소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 반영구** : 후면 신소재 스크린과 카드클리어의 세척면으로 변 공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초소형** : 높이 30cm, 폭20cm, 무게9kg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이동 설치 가능 합니다.
- 신뢰성** : 미국과 캐나다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연구원과 의 시험 합격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내 공기 정화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을 받고 있습니다.
- 초경기능** : 5층에서 84층까지 공간에 골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자연의 신선한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둥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둥번개는 오존을 생산하고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표면에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지상에 떨어지거나 산화 시킨다. 리빙에어는 이와와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증세를 가라거나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 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중전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서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순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성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으로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사 제작 수입원제품이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스피커만한 크기로 84평까지 청정 지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도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인증서

- ▶ 산업공해시험성적서 · 오존수치(세계안전 오존(O₃)) 안전수치 0.05ppm이하
- ▶ CSA :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증
- ▶ EPA : 미국 환경보호청(검사인증서) ▶ 미국방성으로부터 검사증을 받음

다중 시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시찰 및 복지기관**에 꼭 필요함입니다.

www.o2air.net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중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 노력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 중로구 견지동 110-43
- 전화 02)733-6141 / 팩스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 www.sungjongsas.co.kr
- 대표 : 범산 원광식 (인간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